효의 유래와 불효

성균관 전례사 백송伯松 권혁원(權赫遠, 추밀공파 36세)

필자는 2013년 1년 동안 경민대학 효충교육원 효행교육 최고지도사 과정을 통해 효행교육지도사 1급과 2급을 취득하였다. 이 자격증은 201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증 제2010-0150호로 등록된 자격증이다. 효에 관련된 법안은 2007년 7월 2일 국회의원 185명의 찬성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효행장려법은 법률 제8610호로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필자는 최근까지 성균관 석전釋奠 총동문회 등에서 효에 대해 강의를 해왔다. 이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효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효의 근본으로 말하자면 효자백행지본(孝子百行之本)이라 하고 효치천하(孝治天下)라 하여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도리이고 사회질서 확립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효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윤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부모의 생육(生育)에 대한 자식의 보은(報恩)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덕행을 실천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행위이다. 효는 예절과 병행되어야 한다. 예절의 근본은 효도이며 삼강오륜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효의 시원은 중국의 요순시대(BC 2500년경)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문상서古文尚書 순서舜書》의 "백성들이 친애하지 않고 오품(五品)이 순조롭게 행해지지 않으니 순이 신하일 때 요임금이 천거하고 8명의 선인을 등용하여 사방에 오교를 펼친(백성불친百姓不親 오품불손五品不遜 순신요거舜臣堯擧 팔원八元 선인善人 사포오교우사방使布五教于四方)" 결과 내평외성(內平外成: 가족이 화평하고 사회가 잘 이루어짐)하였다고 하는데 "좌전左傳"(문공文公 18년)을 통하여 오교의 내용이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비롭고 형은 우애하며 동생은 공손하며 자식은 효도한다"(부의父義, 모자母慈, 형우兄友, 제공弟恭, 자효子孝)는 것이 밝혀졌다. 그 후 자사의 "중용中庸" 26장에는 오달도五達道, 즉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현과 동생, 친구 사이(군신야君臣也, 부자야父子也, 부부야夫婦也, 곤제야昆弟也, 붕우지교야朋友之交也)가 나오는데 순舜임금부터 전해져 오는 오교가 가족중심의 질서인데 반하여 오달도는 군신관계와 붕우 즉 국가와 사회로 확대하여 안목을 넓힌 것이 괄목할만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맹자"에 이르러 오륜으로 표현되었다.

내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정의 평화, 사회의 결속, 국가의 안위를 유지해주는 기본도리임에는 차이가 없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핍되면 온전한 형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호보완의 관계를 맺어 가정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확대된다. 한 국가의 기초단위는 가정이며 가정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바로 효와 사랑이다. 이러한 사상은 오천년 동안 중국과 동아시아 전체의 중심사상으로 면면히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효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신체 안전의 효. 둘째, 공경하는 효. 셋째, 양지養志하는 효. 넷째, 시봉侍奉하는 효. 다섯째, 봉양奉養하는 효. 여섯째, 순종順從의 효. 일곱째, 간언諫言의 효. 여덟째, 봉사奉仕의 효. 아홉째, 양명영친揚名榮親의 효이다.

맹자는 불효에 대해 각각 세 가지와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 먼저 "맹자"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불효는 첫째는 부모의 뜻에 아부하고 왜곡되게 따라서 부모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아의곡종함친불의일야阿意曲從陷親不義一也) 둘째는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녹봉을 위한 벼슬을 하지 않는 것.(가빈친노불위녹사이야家貧親老不爲祿仕二也) 셋째는 장가들지 않아 자식이 없어 선조의 제사를 끊는 것.(불취무자절선조사삼야不娶無子絶先祖祀三也)

그 다음 "맹자" 8장에서는 다섯 가지 불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지가 건전하면서 게을러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타기사지불고부모지양惰其四肢不顧父母之養) 둘째, 장기, 바둑, 술로 소일하며 부모를 봉양하지 아니하는 자.(부렴호음주불고부모지양簿廉好飮酒不顧父母之養) 셋째, 처자식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호화재사처자불고부모지양好貨財私妻子不顧父母之養) 넷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함부로 욕심에 따라 무례한 행동만 하여 부모에게 부끄럼과 욕되게 하는 자.(종이목지욕이위부모륙從耳目之慾以爲父母戮) 다섯째, 만용으로 걸핏하면 분노하여 함부로 이웃 사람들과 싸워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자(호용투랑이위부모好勇鬪狼以危父母)

"논어"에는 부모 앞에서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 삼건(三愆)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조躁이다. 조躁는 어른이 말씀하시는 것을 앞질러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은隱이다. 은隱은 어른 말씀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鼓이다. 고鼓는 부모님의 얼굴빛을 살펴 노하셨는지 슬퍼하시는지 근심하시는지를 판단하고 말씀드려야 함에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벌을 가하는데 형벌의 종류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묵형墨刑이다. 이마에 검은 먹으로 불효란 글씨를 써서 문신을 하는 형벌이다. 둘째는 의형劓刑이다. 코를 도려내는 형벌이다. 셋째는 비형 刑이다. 비형은 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이다. 넷째는 궁형이다. 궁형은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이다. 다섯째는 대벽형大辟刑이다. 대벽형은 목을 베는 형벌이다. 극형인 것이다.

이외에도 불경佛經의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이나 성경聖經의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에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경佛經의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서는 열 달 동안 뱃속에서 품어주시고 낳아서 길러주신 은혜와 나를 낳으실 때 서 말 서 되의 피를 흘리시고 여덟 섬 너 말의 젖을 먹여 키워 주셨으니 그 어찌 호천망극昊天罔極(하늘이 끝이 없다는 뜻으로, 어버이의 은혜가 넓고 커서 다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욕경忍辱經"에는 효를 선善의 극치라 하였고, 불효를 악惡의 극치라 하였다.

"성경"의 효를 살펴보면 효사상의 근간이 되는 내용의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의 내용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하였다. 성경에서도 효를 행할 때 복을 말했고,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과 삶의 축복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도 말한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였으니 얼마나 저주함이 엄격한가.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효는 동서를 가리지 않고 종교를 뛰어넘는다. 효는 영원한 하늘의 법칙이자 인륜이다.

효자 남강 권상

효자 정려비

남강 권상의 묘

의로운 거위의 무덤, 의아총義鵝塚

남강(南岡) 권상(權常, 추밀공파 21세, 1508~1589)의 효자 정려비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산24-4에 자리한다. 남강 권상의 묘역 바로 앞이다. 남강의 묘역은 2002년 경기도 지방문화재자료 제109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강은 천성이 무척 효성스러웠다.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의자 성인(成人)처럼 애통해 했다. 어머니가 별세하자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년상을 마치고서도 아침저녁으로 사당에 배례하고 전(奠)을 드리고, 아침저녁 출입할 적에 반드시 뵙기를 종신토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야(朝野)에서는 효행을 추거(推擧)할 적에 권상을 첫째로 삼았다. 급기야 조정에서 여러 차례 효행으로 아뢰자, 임금은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다고 실록은 전한다.(선조수정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일 갑술) 남강은 조선을 대표할만한 효자였던 것이다.

효자 남강 권상 묘역에는 의아총(義鵝塚)이라 부르는 특이한 무덤이 하나 있다. 의로운(義) 거위(鵝) 무덤(塚)이다. 왜 미물에 불과한 거위를 의롭다고까지 했을까. 여기에는 남강 권상과 거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남강공南崗公 권상權常 실기實記"에 기록되어 있다. 실기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남강의 큰 아들 부윤공(府尹公) 권수(權憰, 22세)가 먼저 '의아전(義鵝傳)'을 지었으나 전쟁 때에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이에 셋째인 지신공(知申公) 권희(權憘)가 이 기막힌 이야기가 사라질까 두려워 '속의아전(續義鵝傳)'을 지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嘉靖) 기미년(己未年) 명종 14년(1559) 선군(先君)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김포 통진의 선영 아래서 여묘살이를 하였다. 그런데 통진이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뱀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뱀에 물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여묘살이를 하는 중에도 뱀에 물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흰 거위를 기르면 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에 맏이인 부윤공(府尹公) 권수(權憰)가 흰 거위 한 쌍을 구해서 집안에 우리를 만들어 길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수컷거위가 산짐승에게 잡아먹혀 죽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암컷거위는 목소리가 쉬도록 울면서 죽은 수컷의 곁을 방황하면서 떠나지 않았다. 그 슬피 우는 소리와 수컷거위를 잃은 슬픔에 수척해 가는 모습을 차마 보고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침내 먹이도 먹지 않고 물도 쪼아 먹지 않아 굶어죽을까 염려하여 거위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물과 음식을 집어 넣어 주어도 곧바로 머리를 흔들며 토해내고 삼키지 않았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지내더니 결국 죽고 말았다. 그래서 수컷거위와 암컷거위를 빈 돌에 함께 넣어 산기슭에 묻어주고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면서 의로운 거위라고 이름을 지었다.

슬프다. 거위란 새의 일종인 미물이지만 그 배필을 잃자 따라서 죽은 절개는 가장 신령한 존재라는 사람에게서 찾아봐도 보기 드문 일이다. 이 어찌 아무 것에 감동된 바가 없이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당시 선군(先君)께서는 여묘를 지키실 때 묘소를 만들고 제사 올리는 일을 몸소 거행하였고 하루에 두 번 묘소에 올라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를 않았다. 몸에서 상복을 벗지 않고 입에는 소금과 장과 야채를 먹지 않았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이를 드러내고 웃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몸은 장작처럼 말라 뼈만 앙상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지극한 효성과 순수한 정성은 족히 신명을 감동시킬 정도였으니 거위가 비록 미물이지만 여기에 감동하여 변화된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예전에도 효자가 있어 참새가 순치되고 호랑이가 감동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의로운 거위가 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의로운 거위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강은 "어미가 병들매 옷이며 띠를 끄르지 아니하며, 향 피우고 하늘께 빌되 자신이 대신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한 남강의 사적(事蹟)은 권상지행(權常至行), 즉 권상의 지극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에 수록되어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2020年 6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안동권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족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종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 원

권병구(경기양주) 30,000	권오곤(진주) 30,000	권영우(경기하남) 30,000	권재혁(서울) 30,000
권시현(광주) 30,000	권태화(대구) 30,000	권영팔(서울노원) 30,000	권종덕(인천) 30,000
권영수(의정부) 30,000	권수익(제천) 30,000	권오상(전주) 30,000	권태훈(경기시흥) 30,000
권영주(서울금천) 30,000	권순채(경주) 30,000	권오현(광주) 30,000	권혁모(서울) 30,000

● 납부기간 : 5. 30. ~ 6. 25. ● 총 납부자 16명 ● 총 480,000원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2019년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2월호와 함께 2차 발송하였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명이인 등으로 납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오니 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과 거주지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종회)
국민 033237-04-006941(안동권씨 대종회)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